

LG화학 · SK, 신에너지 개발 박차

산자부, 신·재생에너지 원년 선포 ... 40개 과제 3년간 2000억원 지원

수소·연료전지, 태양광, 풍력 등 3대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50개 기업과 19개 연구기관, 29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 추진된다.

산업자원부가 <신·재생에너지 원년 선포>와 함께 시작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3대 에너지 분야 40개 과제에 400억원이 지원되며, 특히 현대자동차, SK, LG화학, 포스코, 삼성SDI, 효성,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한다.

수소·연료전지 분야에서는 SK의 <수소스테이션 국산화기술개발>, 현대자동차의 <80KW급 자동차용 연료전지>, LG화학의 <50W급 휴대용 연료전지> 등 13개 세부과제를, 태양광 분야는 삼성SDI의 <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상용화기술> 등 17개 과제를 지원한다.

또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보급이 진행중인 풍력은 유니슨의 <20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>, 서울대의 <3MW급 해상풍력발전 개념설계> 등 1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.

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지원현황

(단위: 100만원)

구 분	과제 수		지원 규모				
			정부지원		민간부담		합 계
	기술개발	실용화	기술개발	실용화	기술개발	실용화	
수소/연료전지	6	7	7,846	3,669	6,572	3,671	21,758
태양광	6	11	3,672	3,402	1,866	939	9,879
풍 력	4	6	3,372	2,877	924	411	7,584
합 계	16	24	14,890	9,948	9,362	5,021	39,221

산자부는 “2008년까지 3대 분야에 2000억원을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50-70%의 기술수준을 70-90%까지 육성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9/22>